

박용만 “5~10년 보고, 산업 신진대사 높이는 법안 처리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021 경제계 신년인사회

“기업, 모든행태 합리화 시대 지나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출선 기대”

재계가 새해를 맞아 다시 한 번 정계에 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7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2021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국회에) 산업 신진대사를 높일 수 있는 법안 처리에 올 한해 전향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산업 변화가 빨라지면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 기업에 팽배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새해에 보궐선거 등 정치 일정이 많으면서, 정치와 경제 이슈를 명확히 구분해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1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화상으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세균 총리, 박용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손진영 기자 son@

경제 입법 과정이 정치에 매몰되지 않게 해야한다고도 조언했다.

기업 스스로도 인식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이 성장과 수익으로 모든 행태를 합리화했던 시대는 지났으며, 기업도 시민사회 일원으로 다양한 목적

리에 귀 기울이고 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도 회고했다. 지난해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상공인들은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이 많았

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될 조짐이지만, 지나친 낙관에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박 회장은 “평상시라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단의 부양조치들이 있었고 이들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5년에서 10년 앞을 내다보고 새해 들어 어떤 경제적 선택들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우리 경제 변화가 어떤 충격을 가져올지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 민간 부채 누적과 자산시장 불균형은 전세계가 당면한 문제이며, 조정 과정 속에서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

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계 신년 인사회는 1962년부터 대한상의 주최로 매년 열린 경제계 최대 규모 행사다. 올해에는 주요 인사 600명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 이인용 사장, 현대자동차 공영문 사장, 에스케이 장동현 대표이사, 엘지 이방수 사장, 롯데 지주 이동우 대표이사, 엘에스엠트론 구자은 회장,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삼양홀딩스 김윤 회장 등 주요기업 대표와 전국 4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함께 했다.

중국 북경에 있는 중국 삼성과 북경 현대차 등, 베트남 하노이 에스케이와 한화에너지 등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 대표들도 화상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LG화학, 차세대 소아마비백신 공급

유니세프와 2년간 870억 규모 소아마비백신 ‘유폴리오’ 계약

LG화학이 전세계 재유행 중인 소아마비질환을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 소아마비 백신 공급에 본격 나선다.

LG화학은 국제구호기구인 유니세프와 2021~2022년 총 8000만달러(약 870억원) 규모로 소아마비백신 ‘유폴리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LG화학은 유니세프 전체 조달물량의 20% 이상을 공급, 단숨에 유니세프 톱3 소아마비백신 공급사로 진입하게 됐다.

‘유폴리오’는 약독화 바이러스(독성이 약해진 바이러스)를 이용해 화학적으로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없애는 공정

을 추가로 거친 차세대 사(死)백신으로 기존 생(生)백신(약한 독성의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보다 안전성 측면에서 장점이 크다. 최근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아마비는 생백신을 복용한 아이들의 분노 등에 남아 있는 바이러스가 식수에 섞여 지역사회로 퍼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12월 말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약독화 사백신(Sabin IPV)’으로는 세계 최초로 국제구호기구 백신 공급을 위한 필수 심사인 ‘사전입찰자격심사(PQ)’ 승인을 받았다. PQ 승인 후 제품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3주만에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 바로 다음달부터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계 70여 개국에 공급을 시작하게 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대상, 올 글로벌 매출 1조 달성 목표

>> 1면 ‘미러클 코리아...’서 계속

이런 차원에서 ‘비비고 왕교자’와 같이 해외에서도 통할만한 혁신적인 대형 제품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가장 많은 매출이 일어나는 미국의 경우 미국 전역에 뻗어 있는 냉동식품 기업 슈완스의 강력한 유통망을 통해 비비고 만두를 공급한다. 지난 2018년 슈완스를 인수한 CJ제일제당은 지난해 슈완스 캔자스 공장을 증설했다. 올해는 슈완스와 미국 내 유통망을 통합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식품업계 2위인 대상은 올해 글로벌 사업 매출 1조 달성을 목표로 한다. 청정원·종가집 브랜드를 앞세워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대상은 김치·소스·한식HMR 등 글로벌 전략제품 시장을 확대해 K푸드 대표 기업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대상은 중국 내에서 김치·컵떡볶이·밀키트 등을 필두로 최근 3년 동

안 2배 정도 매출 성장을 이뤘다. 2030년 중국 매출 5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중국 려윈강 공장에 약 250억원을 투자했으며, 중국 내 제품군과 마케팅 활동을 넓혀나가고 있다.

또한 인구 4억명의 중동시장 공략에도 나섰다. 교민이 많지 않은 중동시장은 단순히 제품을 수출해 수익성을 확장한다는 의미를 넘어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식문화를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과업체 중에서는 오리온이 현지화 전략을 앞세워 해외 시장에서 실적 공군 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오리온은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현지 정서를 고려해서 해외 법인마다 각기 다른 판매전략을 통해 시장 진출에 진출했다. 해외 법인 모두 19% 이상의 영업 이익률을 달성하며 올해 최고실적을 달성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내식품사업이 세계적인 인기를 이어나가려면 다양성을 키우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원진 기자 tree6834@

SK, 美 플러그파워에 투자... 수소사업 시동

(수소기술 보유 업체)

차량용 연료전지 등 핵심기술 보유 총 1.6조 투자, 지분 9.9% ‘대주주’

SK그룹이 수소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SK는 SK E&S와 함께 미국 플러그파워 지분 9.9%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SK와 SK E&S가 각각 8000억원을 출자해 1조6000억원을 공동 투자했다. SK가 올해 첫 투자처로 글로벌 수소 기업을 선택한 것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핵심 영역이기 때문이다.

플러그파워는 수소와 관련한 다양한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업체다. 차량용 연료전지와 수전해(물에 전력을 공급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핵심 설비인 전해조, 액화수소플랜트 및 수소충전소 건설 기술 등을 갖고 있다. 지게차와 트랙 등 수소 기반 모빌리티 역량을 확대하며 수소 지게차를 아마존과 월마트 등에 독점 공급하기도 했다. 하반기에는 미국 뉴욕주에 연간 1.5기가와트 연



미국 플러그파워. /뉴시스

료전지 생산 공장을 완공하고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플러그파워는 매년 약 50% 수준의 높은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시가총액은 약 16조원에 달한다. 추후 유럽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앞서 SK는 지난해 수소사업 전담 조직 ‘수소사업 추진단’을 신설하고 사업 전략을 실행 중이다. 2023년 3만톤(톤) 생산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28만톤 규모 수소 생산능력을 갖추고,

밸류체인을 통합 운영하는 등이다.

SK는 플러그파워 최대주주로 아시아 수소 시장 리더십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SK 수소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하고,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는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규 사업 개발 기회를 선점하는 등이다.

플러그파워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아시아 수소 시장 진출 등 사업모델도 준비 중이다.

SK 관계자는 “SK그룹이 보유한 사업 역량과 다양한 외부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수소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라며 “한 발 앞서 친환경 수소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ESG 경영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는 지난해 에너지 관련 회사인 SK E&S, SK 건설, SK이노베이션 등 관계사 전문 인력 20여명으로 구성된 수소사업 전담 조직 ‘수소사업 추진단’을 신설하고 사업 전략 실행에 곧바로 착수했다. /김재용 기자 juk@

文 대통령, 인적쇄신 마무리 할까... 이달 추가개각 예고

5개 안팎 부처 장관교체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5곳 안팎의 부처 장관 교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연말 청와대 참모진에 이어 일부 부처 장관까지 교체하면서 인적쇄신을 마무리하기 위한 구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인적쇄신에 나선 것은 지지율 하락세를 우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문 대통령은 스티븐 반셀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 직접 화상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협상에 나섰고, 부동산 여론 악화를 우려한 듯 ‘혁신적인 주택공급안’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두 차

례에 걸친 부처 장관 인사도 단행했다. 당시 교체한 부처 장관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법무부·환경부 등 7개 부처에 이른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 처장 인사도 교체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비서실장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부장관, 민정수석비서관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 교체도 한 차례 진행했다.

그럼에도 7일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의 부정평가는 61.2%로 지난주와 비교하면 1.3%포인트 늘었다. 주중 집계 기준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60%를 넘어

선 것이다. 긍정 평가도 35.1%로 지난주(36.6%)보다 1.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주중 집계 기준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모름·무응답’은 3.7%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4~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응답률은 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문 대통령의 부정 평가 가운데 ‘매우 잘못함’이 47.1%(잘못하는 편, 14.1%)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정서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긍정 평가 가운데 ‘매우 잘함’은 17.8%(잘하는 편, 17.3%)에 그쳤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